

### 기적 #3: 운동의 기적

보스턴-브래디 | 2023년 7월 2일

기적 - 하늘이 땅을 침범하고 거기에 아름다움을 창조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누가복음 13장은 특히 아름답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그런데 거기에 열여덟 해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허리가 굽어 있어서, 몸을 조금도 펼 수 없었다.*

누가복음 **13:10-11**

나는 성서 필자들이 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많은 세부점을 알려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기서 장소와 시기는 구절의 나머지 부분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계십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서 세 번 발생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안식일에 세 번 회당에 나타나신다. 첫번째

시간은 누가복음 4장에 있으며,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보고 싶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 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 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 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누가복음 **4:18-19**

우리는 2주 전에 이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이유입니다. 좋은 소식을 선포하고

가난한 (그게 우리야!). 포로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라(그것도 우리다 - 기억하라)

"전쟁 포로"). 소경을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주의 은혜의 해 두 개의 큰 선언문이 이 구절을 복엔드합니다.

논제: 예수님은 우리를 고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비전, 삶, 희망 없이 우리를 굶게 만듭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십시오. = 그리스어로 - '기쁜 소식, 기쁜 소식!'

영적으로 가난한 자.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십시오. - 호의 - 수락.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우리에게 구주가 계시고 그분이 사랑하시고 받아들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복엔드 사이에는 그가 우리를 위해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자유, 치유, 비전. 예약된 선언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립적인 진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받아들여집니다. 중간에 있는 물건은 기적의 물건입니다.

하늘이 지구를 침범하고 아름다움을 창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신 것은 그때가 처음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6장에 손 마른 사람을 만나 고쳐주시고

안식일에 일을 하는 종교적인 군중의 분노.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것에 왔습니다

18년. 18년 전에는 몇 살이었습니까? 그 안에서 무엇을 보았니

시간?(나. ..많은 것들). 이 여인은 땅을 본 지 18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속한 사회에서 여성이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성이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한 눈에 띄고 결정적인 장애가 있습니다. 그녀는 18년 동안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연령. 그녀는 다른 방법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의 진정한 기적은 그녀가

전혀 회당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지위를 누릴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 영광... 그녀는 죄가 그녀를 낳은 추방자 처럼 취급되었을 것입니다

고통. 하지만... 그녀는 오늘 그녀의 부러진 몸을 그곳으로 가져왔습니다.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까, 아니면 단지 영적인 삶에 헌신했습니까?

어느 쪽이든, 이것은 용감하고 단호한 여성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하고,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셨다. 그리자 그 여자는 곧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누가복음 13:12-13

신약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다양한 방법을 좋아합니다 .

그의 힘을 우리가 통제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지 못하게 합니다.

그녀는 눈먼 바르티매오처럼 그에게 부르짖지 않습니다.

\_\_\_\_\_의 여자처럼 그의 옷자락까지 기어간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다

그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그녀가 그를 볼 수도 없습니까? 네.

그는 그녀를 부른다. 그는 그녀의 병약함을 발견하고 그녀를 부른다. (어쩌면 우리는 더 넣어

우리가 해야 할 것보다 우리 자신에 대한 책임. 어쩌면 물어볼 방법이 하나도 없거나

그의 관심을 끄는 한 가지 방법. 아마도 당신은 이미 그의 주의를 끌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그녀에게 손을 얹는다. 우리는 이 행위가 얼마나 파괴적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고통당하는 여자에게 손을 대다.

여기서 바리새인 장난 목록의 모든 상자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는 “여자여,

당신은 당신의 연약함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고치실 때 여러 번

"고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그는 “너희는 자유롭다”고 말합니다. 이 경우 "무료"

이혼도 같은 말입니다. 왜 예수님은 "치유" 대신에 그것을 사용하셨습니까?

계속 읽어봅시다: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분개하여 무리에게 말하였다. "일을 해야 할 날이 옛새가 있으니, 옛새 가운데서 어느 날에든지 와서, 고침을 받으시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열여덟 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라도 이 매임을 풀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3:14-16

이것은 감정적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감정적입니다. 그는 화가 났고 믿기지 않습니다. (에서

영성 형성 과정, 예수님처럼 되는 것, 시작하기에 좋은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나요?) 그는 그들에게 여기에 정보가 있으며 이번 여름에 일할 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가 누구이며 기적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는 것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사람이 먼저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그녀를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큰 일입니다.

그분은 이 남자들에게 주어지는 것과 똑같은 영예를 그녀에게 부여하고 계십니다.

그녀는 여전히 몸을 구부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분은 먼저 그녀를 고쳐 주신 다음

그녀의 정당한 신분을 반환합니다. 그녀는 아브라함의 딸입니다. 그녀는 그들 중 하나입니다.

그녀는 속해 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우리가

그와 예수님은 이 좋은 소식을 그녀에게 무료로 건네줍니다.

누가가 아는 한 그녀는 그것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선택합니다. 그녀를 치료합니다. 아마도 그녀의 의지가

그는 그녀가 필요로 하는 모든 믿음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가장 좋은 종류의 부탁일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여자를 우선시하십니다. 그녀의 이야기. 그녀의 고통. 그녀의 속박. 그녀의 신원. 그녀의 치유. 예수님은 그녀를 규칙과 자신의 것 위에 두십니다.

때때로 사물은 물질적으로 보이지만 영적인 것입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확실히 가끔. 그러니 항상 예수님께 우리를 자유롭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이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여자와 사탄의 관계가 무엇이든 간에

그리고 어두움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예수님은 여기에서

자유와 해방의 선포. 그녀는 이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박. 우리는 우리의 고통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 인식합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감정이나 사고 방식과 나쁜 관계에 있습니까?

(친구에게 몸을 구부리며 - "바보". 그녀는 아니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게 하는 자신의 거부와의 관계

결과적으로 그녀는 그녀의 삶에 대한 그분의 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을 고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도 고칠 것입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그를 반대하던 사람들은 모두 부끄러워하였고, 무리는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두고 기뻐하였다.**

누가복음 **13:17**

그들은 지금 행복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이것 때문에 그를 죽일 것입니다.

그러니 자유가 쉽게 온다고 믿지 말자. 사람들은 종종 논쟁을 벌일 것입니다.

당신의 자유로울 권리와 함께. 그것은 전투입니다. 싸워볼 가치가 있는...

유사점이 많은 또 다른 기적 이야기를 빠르게 살펴보십시오.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시고

강력한 방법으로 제자들을 통해:

어느 날 오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절름발이인 한 사람이

미문이라 하는 성전 문으로 옮기우매 날마다

성전 뜰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구걸.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을 때

들어가려고 할 때 그는 그들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사항:

-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절름발이였습니다. 이것이 그가 아는 전부입니다.

- 그에게는 친구가 있고 그들은 기꺼이 그를 아름다운 문 Gate Beautiful에 데려다 줄 것입니다.

돈을 위해, 힘을 내어 그의 음식을 구걸하십시오. 매일...

- 베드로와 요한은 새벽 3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갑니다. 나는 여기서 특이성을 좋아합니다. 그것은 실시간과 실제 장소가 있는 실제 이벤트. 좋은 유대인들은

이 사원은 항상. 예수님을 포함합니다. 이 남자는 매일 거기에 앉아 있었다. 예수

매일 갔다.

베드로는 요한과 마찬가지로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우리를 봐!" 베드로가 말했다. 그래서

사람은 그들에게서 무엇인가를 얻기를 기대하면서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상호 작용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바라보다 - 원본

언어는 "의도적으로"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에게 그들을 보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 그는 간청합니다

올려다보지 않고. 이 문에 앉아 있는 그의 일생 동안 그는

사람들의 눈을 보세요. 우리의 첫 번째 기적에서, 여성의 몸은 그녀를 보도록 강요했습니다.

아래로, 이 이야기에서 남자는 그것을 방금 배웠습니다. 둘 다 자신을 잃었다.  
그들이 누구이며 어떤 삶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비전.

베드로가 이르되 은이나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소서!” 그를 데려가  
오른손으로 베드로가 일으켜 세우니 곧 그 사람의 발과 발목이  
강해졌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걸기 시작했다. 그런 다음 그는 갔다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가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을 보고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과 같으니라  
그들은 그들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 기이함과 놀라움으로 가득 찼다.  
사도행전 **3:1-10**

여자와 마찬가지로 이 남자도 자신의 상태에 마비되어 있습니다. 그는 갇혀있다. 둘 다  
그들 중 눈이 멀었지만 어느 누구도 진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 여인처럼 이것은 오랜 고통입니다. 괴로움이 되어버린 것  
정체성. 때때로 고통이 정체성이 될 때, 묻는 대신  
기적을 위해, 우리는 기적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간구할 뿐입니다. 우리는 분기를 요청합니다  
하루를 버틸 수 있도록.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완전히 파산했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들이  
없었나요? 그들의 자원이 끝나는 것이 가능합니까?  
초자연적 자원을 이용하도록 강요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걷는 사람을 보았을 때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그만큼  
성인이 된 후 평생 동안 매일 같은 게이트에 있었던 같은 남자. 그는  
지금은 "걸을 수 있는 거지"가 아닙니다. 그의 정체성이 바로 잡혔습니다.

이 두 기적은 모두 움직임의 기적입니다. 그들은 개입  
일어 서서 다시 움직이는 천국 - 그러나 그들은

또한 정체성의 기적.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서도 똑같은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당신의 무게에 의해 구부러진 느낌이 드는 곳이 있습니까?

상태? 자녀에 대한 걱정으로? 돈 걱정이나 진로 걱정이나

우울증이나 상실 또는 상실? 당신을 구부리고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 앞에 있는 미래를 보려면?

당신의 삶에 갇혀 있다고 느끼는 곳이 있습니까? 도움을 청하는 것처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적을 믿기보다 괴로움과 함께 사는 것? 아마도

매일 당신의 컵에 1/4을 던져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결혼하거나 여름을 보내거나 고등학교를 살아남거나 ...". 거기 아무도 없나요

기적 대신 유인물을 요구하는 곳?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혼란을 관리해야 합니다. 손과 공존하는 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우리는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적을 구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곳에 그분이 개입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돌아가자.

즉각적인 변화 또는 간헐적인 단계와 기술을 제공하여

선하신 아버지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택받고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은 기적적인 개입을 일으키기 위해 모든 종류의 것을 사용합니다. 내 투쟁에서

쇠약해지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그분은 자신의 강한 팔을 사용하셨습니다.

내 인생에서 거의 즉시 놀라운 일을 했지만 그는 또한 전문가를 사용했습니다.

내가 성령과 협력하여 건강한 사고 방식.

그 계절에 그는 초자연적인 계절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상담 시즌 - 내 인생의 모든 개입이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나에게. 그러나 모든 것은 그분을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고통과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며 때로는 오직 그분만이 사용하는 자원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지적하십니다. 그는 이름을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18년 동안 어둠의 속박. 잃어버린 18년의 기회와

심통. 그녀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살아온 18년. 그리고 그것은 매우 구체적인 이야기의 세부 사항은 우리 자신의 삶에서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질문은 "지난 18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요?"가 아닙니다.

그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더 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앞으로 18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당신이 결코 찾을 수 없다면 당신은 무엇을 놓칠 수 있습니다

자유를 주러 오신 예수님? 당신이 갇혀 있다면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당신이 그분이 손을 뻗어 당신의 머리를 들어 올리게 하고, 당신의 마음과 목적은?